

뭇 생령의 눈동자 만나 화엄십지 꿈꾸노니

현대불교 창간 5주년 기념의 노래

고은

다섯 눈 푸르리라



여기 다섯눈 노래 있어라 5안송 있어라
어느새라고 놀라지 말자
하루하루 지칠 줄 모르고 걸어서
때로는 슬치게 달려서
오늘 현대불교 다섯해 맞이함에
어느새라고 새삼 놀라지 말자
땀 흘렸다
눈물 흘렸다
몸 식을 겨를 없었다
오로지 만년의 지혜 펼쳐
이 세상 저문 가늠마다 다가가
함께 밤이면 호롱불 피고저
함께 낮이면 길동무 되고저
함께 웃고 눈보라치는 날이면
서로 앞서거나 뒤서거나
마음속 모닥불 지펴 왔다

그러는 동안 한 해가 가고
또 한 해가 갔다
다섯 해 맞아
여러 진리의 얼굴 보았다
꽤 이다지 묶여있는데 자재로운가
꽤 이다지 분별 차별인데 평등인가
동아갈 곳 없이
앞 세상이 크고 멀다

현대불교 다섯해 동안
육안형정삼
천안형정삼
혜안형정삼
법안형정삼
불안형정삼을 노래하여
눈마다 눈동자 살아나니
온세상 두루 빛나라

그리하여 으시시 추운 봄날
내 눈에 종달새 소리 내려왔다
지그시 눈감겨
내몸의 눈이었다 육안이었다
함께 어둠이면
호롱불 아니어도 좋아라
어둠속 눈 감고
오손도손 정저렸다
그러다가 소소리켜
지난날 살았던 하늘에서
내 눈이 내려왔다
다 보았다
그대의 뒷모습 보았다
천안이었다

함께 슬기롭고 어리석었다.
함께 서로 반의의 나날이었다.
어느날 이 세상 덧없음과
나 없음과
너 없음을 보았다.
행행그레 공을 보았다.
혜안이었다.

사장실이 편집실이 되고
극장실이 기자실이 되고
기차 하나하나가 회사가 되고
직원 하나하나가 임원이었다
이러구러 다섯 해동안
여러 눈 번갈아
바다의 술한 고기들 눈동자와 만나고
산과 돌 짐승의 눈동자들
무릇 풀 꽃 이슬의 눈동자들
어중이 떠들이 인간계
뭇 생령과 망령들의 눈동자와 만나
너 없이
나 없고
나 없이
너 없어라
여기 화엄상주
여기 화엄십지 꿈꾸노니
우리 현대불교 다섯살에
고개숙여 바라노니
다섯 눈 푸르리라
세상의 구석구석 날아가거라

(시인·본지는설고문)

그림·조향숙

“뭇 더 이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”

그리고 전국 많은 사찰에선
저희 회사에서 제작된 전통 의식구로 각종 행사 및
제의식이 장엄하게 치뤄지고 있습니다



인로왕번 이미타번 오방번 원앙생번

- 번의 종류
- 인로왕번 ● 이미타번 ● 지장보살번 ● 삼신번 ● 시왕번
 - 칠어래번 ● 보고번 ● 향마진언번 ● 도명존자번 ● 무독괴왕번
 - 원앙생번 ● 구병시식번 ● 용왕(방생)번 ● 영가번

사찰에 꼭 필요한

(연) 輦幡 (번)

장엄합니다 / 화려합니다 / 섬세합니다



천도재, 49재, 예수재, 영산재, 수륙재, 각종행사

* 전화주시면 카다로그를 보내드리겠습니다

“불교전통 幡그대로를
재현하였습니다”

불보살의 위덕과 무량한 공덕을 나타내는 幡(번)은 화려한 공단과
섬세한 자수로 전통의식 幡(번)그대로를 재현하여 만들어진 작품으로서
종교적 경건함과 예술적 아름다움이 현대 어우러져 불교의 각종 행사에
꼭 필요한 장엄용품입니다



삼신번 보고번 지장보살번 향마진언번

한국불교전통공예

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2동 515-44
전화 (02)494-4890/1
영남: 경남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467-8
대표전화 (052)258-2813